

생선구이·계란말이... 밑반찬 사라 편의점 간다

직장인 박모(31)씨는 퇴근길 집앞 편의점에 들러 계란말이와 연어장 등 반찬 몇가지를 구입하는 게 일상이다. 혼자사는 탓에 음식을 해먹는 것보다 간단한 반찬을 사서 먹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또 볶음김치와 단무지 등에 국한됐던 것과 달리 최근 편의점업체가 고등어구이, 스테이크, 제육볶음, 계란말이, 각종 젓갈 등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여기에 접근성도 좋아 대형마트에 가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는 게 박씨의 설명이다.

유통업계 최전선으로 불리는 편의점에서 장을 보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반찬을 물론, 소포장된 채소와 과일도 구입하는 소비자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5일 편의점 CU(씨유)에 따르면 반찬류의 연도별 매출 성장률은 2015년 2.4%, 2016년 8.0% 등 한 자릿수로 미미했으나 지난해 13.1%에 이어 올해 1분기에는 42.2%로 급증했다.

지난해 CU의 연령별 반찬 구매 비율을 보면 40대가 2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30대(26.4%)와 20대(18.3%) 순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인 50대(15.6%)와 60대 이상(7.0%)도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편의점 반찬은 1~2인 가구가 이용하기 편리한 소포

1인가구 이용 편리한 소포장 인기

접근성 좋고 24시간 영업 장점

CU·GS25 1분기 매출 50% ↑

채소·과일·식재료 수요도 늘어

장 제품이 대부분이다. 24시간 언제나 집에서 가까운 점포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어 이용자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편의점 GS25의 지난해 냉장 반찬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61.8% 오른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51.4%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선보인 '유어스 속 초 붉은대게떡볶이'는 출시 한 달 만에 43만개가 팔렸고 최근까지 290만개가 판매됐다.

세븐일레븐이 지난달 9일 출시한 냉장 반찬 '밥통령 연어장'도 출시 40일 만에 50만개 이상 팔렸다. 연어장은 가스오부시로 맛을 낸 양념간장에 연어회와 양파, 청양고추를 넣은 제품이다.

또 접근성이 좋고 24시간 영업이라는 특징 때문에 편의점에서 식재료를 사는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편의점 CU(씨유)의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아재와 양국, 계란, 냉동 삼겹살 등 식재료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1.2% 증가했다. 식재료 연도별 매출 성장률은 2015년 1.6%에 불과했지만 2016년 19.7%, 지난해 16.0% 등으로 두자릿수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식재료의 입지별 매출 비중을 보면 아파트, 빌라 등이 모인 '가족주택가'가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오피스텔과 원룸촌 등 '독신자 주택가'(14.4%), 주거공간과 상가가 함께 있는 '주택근생'(13.1%)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58.0%)이 남성(42.0%)보다 많이 구매했다. 연령별로는 40대(27.4%)가 가장 많이 구매했고, 편의점 주요 고객인 20대와 30대는 각각 21.2%, 23.1%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편의점 업계에서도 늘어나는 식재료·반찬 수요에 맞춰 냉장육과 각종 채소, 과일의 품목을 확대하는 등 1인가구 집기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편의점업체 관계자는 "편의점이 1인 가구의 냉장고 역할을 하면서 도시락뿐 아니라 밑반찬으로까지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런 추세에 맞춰 업체마다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 올해 관련 매출이 2~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연합뉴스



'골드키즈페어' 행사를 앞두고 단장을 마친 광주신세계 아동복 매장의 모습.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신세계, 27일~5월 3일 '골드키즈페어'

어린이날 앞두고 아동·유아복 저렴하게 판매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최민도)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동·유아복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골드키즈페어'를 연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1주일간 '골드키즈페어'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골드키즈'는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며 등장한 신조어로 '외동아이를 태어나 귀하게 자란 어린이세대'를 뜻한다. 1~2명의 아이만을 낳아 최고로 키우고자 하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단어로, 아동·유아 부문 매출 역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광주신세계의 아동·유아부문 연간 매출은 지난 2015년 8.4%, 2016년 3.5%, 2017년 2.9% 등 매년 신장하고 있다.

부모와 아동이 같은 디자인의 옷을 입는 '미니미 패션'이 유행하면서 기존 성인브랜드 패션 키즈라인 브랜드가 강세를 보였던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런 현상에 따라 광주신세계가 골드

키즈페어에서 선보이는 대표상품으로는 '게스키즈'의 반팔티셔츠 2만8000원, 레깅스 3만3000원, '블랙야크키즈'의 반팔 상·하의 세트 3만8000원~4만2000원 등이 있다.

또 '노스페이스키즈'의 트레이닝세트 6만1600원과 '월라키즈' 티셔츠와 신발이 각각 2만9000원, 3만9000원에 준비돼 있다.

여기에 '오르시페'의 아동잠옷은 2만2000원~2만8000원, 성인잠옷 3만3000원, '프로션'의 아동 선글라스 4만9000원~6만9000원, '베송쥬쥬' 신발 4만5000원~4만9000원 등 다양한 상품을 마련했다.

한편, 27일부터 5월 7일까지 '타미릴 피겨키즈'의 브랜드데이드도 진행된다. 10% 할인혜택과 5월3일까지 10만원이 상 구매고객에게 허리가방을 증정(선착순 50명 한정)한다. 같은 기간 '블랙야크키즈'도 정상상품을 20% 할인판매할 예정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 백화점, 화장품·명품 남성고객 '큰 손' 떠올라

외모·패션에 투자 '그루밍족' 늘어 유통업계 '멋 내는' 남성잡지 마케팅 롯데, 명품 편집숍 '엠메부띠끄' 오픈

광주지역에서도 외모와 패션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성들을 일명 '그루밍족'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 여성들의 전유물만 여겨졌던 화장품과 해외명품들도 남성고객이 늘면서 백화점업계 'VIP 고객'으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남성고객의 화장품 일인당 구매금액(평균)은 4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고객의 일인당 구매금액 36만원에 비해 25% 높은 수치로, 여성에 비해 고가의 화장품을 구입하는 남성이 더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외명품 상품군 역시 남성고객의 일인당 구매금액은 170만원으로, 여성고객 160만원에 비해 6.25% 정도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해당 상품군에서의 전체 매출 중 남성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남성고객들의 매출구성비는 지난 2007년 10년 전보다 화장품은 17%에서 26%로 9%포인트 증가했고, 해외명품도 22%에서 27%로 5%포인트 늘었다.

이는 개성을 드러내기 원하는 20~30대의 남성 고객들이 화장품과 액세서리 구매에 지출을 아끼지 않고, 경제력을 갖춘 40~50대의 중년 남성들은 본인의 사회적 지위와 품위를 드러낼 수 있는 해외명품 구매에 지갑을 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7층 남성전문 해외명품 편집숍 '엠메부띠끄'매장에서 고객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이에 따라 광주지역 유통업계도 '큰손'으로 떠오른 남성고객들을 잡기 위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3월 남성들만을 위한 해외명품 전문 편집숍 '엠메부띠끄'를 신규 오픈해 인기브랜드인 지방시, 몽클레어, 폴스미스 등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1층 시계매장에서 오는 27일부터 5월13일까지 모네토 오리스 시계 25% 할인 행사를 진행

한다. 갤러리아몰라 상품 구매 고객에게는 5월11일부터 14일까지 카드지갑을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예정돼 있다.

김지우 광주영업부 남성바이어는 "멋 내는 남성들이 많아지면서 남성 고객이 백화점의 '큰 손'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남성들만을 위한 전문 매장 구현과 남성 전용 상품 라인 확대가 향후 유통업계의 주요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